

# IOC, LAB 12만톤 증설 마진압박

## 세계 최대 Single-Train Kerosene-to-LAB 플랜트 ... 가격인상 치명타

인디아 국영기업 IOC(Indian Oil)가 127억8000만Rs(2억7600만달러)를 투자한 LAB(Linear Alkyl Benzene) 플랜트의 커미션닝에 들어갔다.

IOC의 인디아 Baroda 소재 정제소에 위치한 LAB 플랜트는 생산능력 12만톤의 세계 최대 Single-Train Kerosene-to-LAB 플랜트로 인디아의 LAB 생산능력은 앞으로 총 48만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다. 같은 부지 내 정제소에서 n-Paraffin 및 벤젠(Benzene)을 공급받을 예정이다.

이에 따라 LAB 플랜트를 통해 IOC는 최초로 석유화학 분야에 진출하게 됐다.

IOC는 내수 및 수출시장 모두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, 인디아는 LAB 공급과잉 지역으로 수출량이 약 8만톤에 달하고 있다. 따라서 내수시장이 신규 생산능력을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모색하고 있다.

그러나 마진악화로 인해 LAB 생산기업들이 n-Paraffin 및 벤젠 코스트 상승분을 커버하기 위해 가격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IOC의 신규 플랜트 건설은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반면, 인디아는 미국 수출비중이 적기 때문에 북미 LAB 시장은 신규 생산능력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.

세계 LAB 시장은 과거 몇 년 동안 신규 생산능력이 붓물을 이루면서 공급과잉 상태에 직면했으며 플랜트 가동률은 80%를 밑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9/30>